



경영 핵심 방향으로 ▲AI 기반의 AX 전환을 통한 스마트 업무 혁신과 시설관리 고도화 ▲친환경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제공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최우선 경영 ▲시민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디지털·AX 전환 분야에서는 ERP 고도화와 연계한 업무 자동화, 정보보안 체계 강화, IoT 기반 시설 관제 시스템을 AI 분석 체계로 확장해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줄이고 현장 관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공단 전반에 정착시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또한 함께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친환경 분야에서는 시설 운영 전반에 태양광 설비 확충 등 RE100 달성을 위한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자원 절감을 통해 친환경 시설 운영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 경영은 공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핵심 가치로 설정했다. 모든 현장과 모든 작업의 시작과 끝에 안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기본 수칙 준수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임직원 모두의 안전 의식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켜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을 중심에 둔 경영 마인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민원과 서비스 하나하나를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살피는 공공서비스를 실천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공공성 강화와 책임 경영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단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신규 사업과 공공시설 수탁을 적극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끄는 핵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재환 이사장은 “지난해가 경영 체계를 정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전 임직원이 본업에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조직 문화 속에서 담대하고 끈질긴 혁신을 이어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공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사진대지

